

# 金堤 金山寺 조각승 淸虛의 造像 활동

송은석\*

I. 서론
II. 청허의 보조 조각승 시기와 원오파
III. 청허의 수조각승 시기와 청헌파
IV. 경산 선본사 아미타상의 조각가와 제작시기 추론
V. 결론

## I. 서론

조선 후기에 조성된 수많은 불상들에는 제작에 관한 매우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발원문이 복장에 납입되는 것이 상례였다.<sup>1</sup> 2000년대에 들어 많은 불상으로부터 복장이 조사되었으며 복장발원문으로부터 많은 조각가 또는 조각가들의 유파가 확인되었다.<sup>2</sup> 주로 17-8세기에 활동하였던 이들 조각승들은 수장인 首彫刻僧을 중심으로 여러 보조 조각승들이 일정한 조각 양식을 공유하는 流派를 이루어 활동하였다. 조선 후기에 활동하였던 조각승 유파는 한 명의 수조각승과 많은 보조 조각승들이 스승-제자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유파의 조각 양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었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불상들은 제작 시기나 지역에 따른 차이보다도 조각승 또는 조각승 유파에 따른 양식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이라 하여도 유파에 따라 매우 다른 양식의 불상을 조성하였던 사실에서 이를 확

\* 동국대학교, 경주 교수(이 논문은 선본사와 (재)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 편찬한 보고서 『八公山 禪本寺』(2013)에 수록된 필자의 논문 「조각승 청허와 경산 선본사의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수정, 증보한 것이다.)

1 송은석, 「조선후기 불상의 腹藏發願文과 彫刻僧 기록」,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3(2007. 11), pp. 11-30.

2 대부분 승려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彫刻僧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도 조각승으로 지칭하겠다.

3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사회평론, 2012), pp. 27-28.

인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과 조각 양식을 공유하였던 17-8세기의 여러 조각승 유파들은 유파 외부의 조각승들과 함께 작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상당히 큰 규모의 국가적인 불사이거나, 둘 이상의 조각승 유파를 초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화주승이 불사를 주도하는 등의 예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2개 이상의 조각승 유파가 모여 함께 작업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조각승 유파 사이에 행해진 합동작업의 유형은 ‘彫刻僧 流派와 流派의 합동작업’과 ‘彫刻僧 流派와 個人의 합동작업’으로 구별된다.<sup>4</sup> ‘조각승 유파와 유파의 합동작업’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유파에서 각각의 首長이 직접 참여하는 유형이며, ‘彫刻僧 流派와 個人의 합동작업’은 특정 유파 소속 조각승들이 유파 소속이 아닌 특정 개인 조각승을 수조각승으로 모셔서 함께 작업하는 유형이다.

조각승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불상을 제작한 방식은 ‘조각승 유파와 개인의 합동작업’ 방식에 속한다. 청허는 원래 元悟派에 속한 조각승이었는데, 그가 수조각승으로서 참여한 3건의 불상 조성 불사에서는 대부분 淸憲派 소속의 조각승들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sup>5</sup> 즉, 처음 보조 조각승 시기에는 원오파에 속하여 있었지만, 수조각승 시기에는 청헌파 조각승들을 데리고 불상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조각승 유파 내에서 師資相承하는 관례가 일반적이었던 조선 후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가 조선 후기에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니어서, 無染派 출신의 道祐가 熙藏派의 보조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한 사례나, 원오파 출신의 幸珙가 무염파 조각승들을 보조 조각승으로 삼아 함께 불상을 조성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sup>6</sup> 본고에서 다룰 조각승 청허도 이들과 동일하게 타 유파의 보조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한 합동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sup>7</sup>

조각승 청허는 경산 경흥사에 봉안중인 「목조석가불좌상 조성발원문」의 「全羅道金山寺畫員」

<sup>4</sup> 조선 후기 조각승 유파 사이의 합동 작업에 대해서는 송은석,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美術史學』 22(2008. 8), pp. 69-103 참조.

<sup>5</sup> 원오와 원오파 조각승에 대해서는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6), pp. 52-59; 宋殷碩,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pp. 66-75; 宋殷碩,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覺敏, 應元, 印均」, 『普照思想』 29(2008. 2), pp. 300-311; 최선일, 앞의 논문(2006. 6), pp. 52-59; 문명대, 「석준(釋俊), 원오(元悟)파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講座美術史』 36(2011. 6), pp. 579-597; 최선일, 「남원 선원사 木造地藏菩薩三尊像과 조각승 元悟」, 『美術史學』 27(2013. 8), pp. 231-257 참조.

<sup>6</sup> 宋殷碩, 「무염파 출신 조각승 도우와 회장파의 합동작업」, 『미술사와 시각문화』 7(2008. 10), pp. 198-223.

<sup>7</sup> 조각승 청허에 대한 연구로는, 李熙靜,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3(2005. 10), pp. 169-171;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6), pp. 52-59; 송은석, 앞의 논문(2007. 2), pp. 66-75; 이희정,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8), pp. 145-155 등이 있다.



기록에 의해 전북 김제의 금산사 출신의 조각승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발원문 기록에 의하면, 그는 1605년에서 1645년까지 활동하였으며, 그의 조각가로서의 생애는 보조 조각승 시기와 수조각승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1605년부터 1622년까지의 전반기는 元悟, 覺敏 등 원오파 조각승들 아래에서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했던 시기이며, 1640년에서 1645년까지의 후반기는 淸憲派에 속한 조각승들을 보조 조각승으로 삼아 수조각승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1622년부터 1640년까지의 약 18년 동안은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보조 조각승 시기인지 수조각승 시기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표 1).

## II. 청허의 보조 조각승 시기와 원오파

조각승 청허에 대한 첫 기록은 1605년에 제작된 論山 雙溪寺 〈木造三方佛坐像〉의 造成發願文이다.<sup>8</sup> 수조각승 元悟 아래로 信玄, 淸虛, 神劔 등 3명의 보조 조각승과 助緣 또는 修習으로 추정되는 希春 등 모두 5명의 조각가가 참여하여 萬曆33년인 1605년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三佛을 완성하였다고 한다.<sup>9</sup> 다음의 기록은 益山 觀音寺의 〈목조보살입상〉 조성발원문이다. 발원문 기록에 의하여 문수보살상, 보현보살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가운데 하나로 밝혀진 보살상인데, 함께 조성된 나머지 세 보살상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sup>10</sup> 발원문에 의하면, 16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조각승 元悟를 중심으로 차조각승 忠信 그리고 淸虛, 信賢, 神劔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네 보살상을 조성한 후 ‘北庵에 봉안하였다고 한다.’<sup>11</sup> 앞의 논산 쟁계사 불사에 빠졌던 忠信이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청허와 신현의 순위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변함이

<sup>8</sup> 「論山 雙溪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 1605년 7월, 白紙墨書(문명대 석문): “萬曆三十三年乙巳季春三月日 欲成佛像慈悲納子靈觀 敬請良工善手 作過夏而孟秋七月敬造訖功 晦日安于雙溪寺二層……佛像造成秩 證明持殿 印湖比丘 畫員上首大禪師元悟比丘 信玄比丘 淸虛比丘 神劔比丘 希春……”; 문명대, 앞의 논문(2011. 6), p. 582.

<sup>9</sup> 이 불사에서 청허는 원오, 신현에 이어 3위 조각승으로 기록되었는데, 같은 해 11월에 조성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조성발원문과 김해 선지사 〈목조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는 청허가 2위 조각승, 신현이 3위 조각승으로 기록되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

<sup>10</sup> 「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造成發願文」, 1605년 11월, 白紙墨書(최선일 석문): “山人儀菴發大誓願廻見名山甲午之間到於北庵丁酉之歲本寺兵火盡宵佛殿與諸閣忽作騰蘿之田……乙巳八月始於文殊普賢觀音地藏等尊像……萬曆三十三年歲次乙巳十一月日記……畫員秩 元悟比丘 忠信比丘 淸虛比丘 信賢比丘 神劔比丘……”

<sup>11</sup> 최선일은 최근 논문에서 완주 위봉사의 복암을 발원문에 언급된 복암으로 비정하였으며, 완주 威鳳寺에 봉안되었다가 도난당한 지장보살상과 우협시로 추정되는 보살상, 익산 慧峰院의 좌협시로 추정되는 보살상(153.5cm) 등 세 보살상이 그 크기와 양식으로 보아 나머지 세 보살상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최선일, 앞의 논문(2009. 8), pp. 11-12 참조.

없다.<sup>12</sup> 이들 5명의 조각승들은 위의 네 보살상과 함께 1605년 11월에 또 다른 아미타상 1구를 동시에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金海 仙地寺 〈목조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수조각승 원오를 비롯하여 충신, 청허, 신현, 신일 등 5명의 조각승이 아미타상 1구를 조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조각승들은 앞에서 언급한 익산 관음사의 보살상을 비롯한 4보살상을 조성한 조각승들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sup>13</sup>

청허와 관련된 기록으로 年紀가 없는 불교미술박물관 소장 조성발원문도 들 수 있다. 이 복장발원문이 납입되었던 불상은 1596년 왜적에 의해 불상이 소실된 후 몇 년 뒤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고, 1615년 입적한 부휴당 善修大師가 證明이었던 점으로 보아, 왜적을 완전히 물리친 1598년에서 161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즉, 정확한 제작년도는 알 수 없지만 논산 쌍계사 삼방불상이나 북암의 사보살상이 제작된 1605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인 것이다. 또한 이 발원문에는 畫員으로 願悟, 覺敏, 德奇, 淸虛의 네 명이 기록되었는데, 그중 각민과 청허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선지사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서도 元悟와 함께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으로 등장했던 점으로 보아, 불교미술박물관 발원문에 언급된 願悟는 元悟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청허가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하던 초기 행적의 다음 기록은 1610년 12월에 완성되어 고창 선운사 振錫堂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조성발원문 기록이다.<sup>15</sup> 수조각승 圓悟를 비롯하여 學文, 忠信, 儀正, 淸虛, 弘敏, 申鈞, 海巖, 太珪 등 9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였는데, 청허는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sup>16</sup> 1614년 9월에 완성된 순천 송광사 대웅전의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조성기 기록에도 조각승 청허가 등장한다. 불상은 한국전쟁 당시 파괴

<sup>12</sup> 논산 쌍계사 삼방불상 조성발원문의 淸虛가 여기서는 靑虛로 信玄은 信賢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sup>13</sup> 「金海 仙地寺 木造佛坐像 발견 造成發願文」 1605년 11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萬曆三十三年歲次乙巳十一月日造成 彌陀尊像……畫員元悟忠信淸虛信玄神鈞…….”

<sup>14</sup> 「서울 佛教美術博物館 所藏 造成發願文」 1598-1615년, 白紙墨書 (고경 석문): “……證明善修大士 畫員願悟覺敏德奇淸虛…….”; 송은석, 앞의 논문(2007. 2), p. 68. 이 불상 제작에 증명한 善修는 1543년에 全北 槥樹에서 태어나 1615년에 입적하였다.

<sup>15</sup> 振錫堂이란 전각이 어느 절에 있던 건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辛德時(1532-1585)의 시문집인 『白麓遺稿』(1660)에 “禪雲寺 振錫堂 僧僧”이란 시에 의해서 진석당이 선운사 소재의 전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碧巖錄』에 수록된 公案 중 하나인 “麻谷振錫”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振錫’이란 당호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어서, 선운사 진석당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보살상은 현재 전북 남원 선원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선일, 앞의 논문(2013. 8) 참조.

<sup>16</sup> 「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610년 12월, 白紙墨書 (최선일 석문): “萬曆三十九年庚戌十二月晦日點眼慶讚安于振錫堂……畫員秩 圓悟比丘 學文比丘 忠信比丘 儀正比丘 淸虛比丘 弘敏比丘 申鈞比丘 海巖比丘 太珪比丘…….”

되었으나,<sup>17</sup> 송광사의 사적기인 『曹溪山松廣寺史庫』에 覺敏, 幸思, 淸虛, 寶玉, 熙淳, 心淨, 應梅 등 7명의 조각승들이 삼불상을 제작하였다고 하여, 청허가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 기록은 1929년 『조계산송광사사고』가 편집될 당시까지 남아 있던 복장발원문 등 1차 사료에서 옮겨졌을 것이므로 매우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판단된다.

보조 조각승 시기의 마지막 기록은 1622년 5월 궁중 원찰인 慈壽寺와 仁壽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11구의 불상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진 불상인 서울 地藏庵〈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발원문이다.<sup>19</sup> 이 불사는 조선 후기의 불상 조성 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불사였을 것이다. 왕비가 직접 발원하고 조성하여 왕실 원찰인 慈壽寺·仁壽寺에 봉안하였던 불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당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장 유명한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sup>20</sup> 이 불사는 왕비가 발원하여 모두 11존상을 한꺼번에 조성한 대 불사였기에, 玄眞淸憲派의 玄眞, 勝日, 明晝, 應元印均派의 應元和 印均, 守衍派의 守衍, 寶熙, 性玉, 法靈派의 法靈, 元悟派의 淸虛 등 17세기를 풍미한 조각승과 유파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다.<sup>21</sup> 이 불사에서 청허는 원오파를 대표하여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이미 원오, 각민 등 원오파의 초기 수조각승들은 은퇴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청허는 1600년대 초반인 1605년에서 1614년 사이 원오파에 소속된 조각승으로서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즉, 1605년 7월에 완성된 논산 쌍계사〈목조삼방불좌상〉, 1605년 11월에 완성된 北庵〈목조사보살입상〉, 김해 선지사 소장 『腹藏發願文』에서 언급된 1605년 11월 완성의〈목조아미타불좌상〉, 불교미술박물관 소장의 『복장발원문』에 기록된 17세기 초 제작의 불상, 그리고 1610년 12월에 완성되어 振錫堂에 봉안되었던〈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한 불사에서는 元悟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1614년 순천 송광사〈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을 조성할 때에는 원오파의 또 다른 수조각승인 覺敏 아래에서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각민은 1605년 선지사 복장발원문과 연대미상의 불교미술박물관 소장 복장발원문에 각각 3위와 2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며, 1614년의 송광사 불사 이전인 1606년에 이미 수조각승으로 독립하여 公州 東鶴寺의 삼방불상을 조성한 원오의 계승자로 추

17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Ⅲ-광주광역시·전라남도편(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5), pp. 44-58.

18 『順天 松廣寺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 造成記』 1614년 9월(『曹溪山松廣寺史庫』[1929], pp. 717-718): “大雄殿三佛像 萬曆四十二年甲寅四月日始役九月日畢慶讚終了……書員 覺敏 幸思 淸虛 寶玉 熙淳 心淨 應梅…….”

19 이 불상에 대해서는 문명대, 앞의 논문(2007. 12), pp. 355-380; 송은석, 앞의 논문(2008. 8), pp. 69-103 참조.

20 자수사와 인수사는 서울 도성에 있던 尼院으로, 늙어 의지할 데 없는 宮인들이 몸을 의탁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龍國, 『慈壽宮과 仁壽宮』, 『郷土서울』 27(1966. 8), pp. 3-38 참조.

21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造成發願文』 1622년 5월, 靑緞紅書(문명대, 앞의 논문[2007. 12], p. 357): “……造像 書員 秩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晝 淸虛 性仁 寶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冶匠 性玉 勝一 密衍 義仁…….”

정되는 조각승이다.<sup>22</sup> 즉, 앞에서 살펴본 모든 기록들에 의하면 청허는 그의 초반 보조 조각승 활동기에는 원오, 각민 등 원오파 조각승들의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의 수조각승 시기인 1640년대에 청헌파 조각승들과 함께 불사를 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 Ⅲ. 청허의 수조각승 시기와 청헌파

청허의 후반기는 1640년대에 수조각승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1622년 서울 자수사와 인수사 불사 이후에 약 18년간의 기록상 공백기를 거쳐 1640년 居昌 演水寺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44년 慶山 慶興寺의 〈목조석가삼존불좌상〉, 그리고 1645년 尙州 南長寺의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조성하였다.<sup>23</sup> 그런데 1600년대 초반의 불사에서 원오파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였던 것과 달리 1640년대 수조각승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원오파 조각승들이 아니라 淸憲派 조각승들과 함께 불사를 진행하였으며, 원오나 각민 등 원오파를 이끌었던 선배 조각승들의 작품과 달리 청헌파 양식을 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淸虛와 淸憲은 동일인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할 정도로 작품도 유사하였다.<sup>24</sup> 그렇다면 청허는 1640년대 수조각승 시기에 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원오파 조각승들의 조각 양식과 달리 청헌파의 작품과 유사한 불상을 조성하였고, 무슨 연유로 원오파가 아닌 청헌파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하였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조각승 시기에 청허와 함께 불상 조성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들이 정말 청헌파 출신 조각승들인지 확인하고, 실제 작품의 양식적 특징이 원오파가 아닌 청헌파와 동일한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작품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640년 거창 연수사 아미타삼존상, 1644년 경산 경흥사 석가삼존상, 그리고 1645년 상주 남장사 아미타삼존상

<sup>22</sup> 정은우, 「동학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상의 연구」,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동학사·공주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7), pp. 122-135 참조.

<sup>23</sup> 거창 연수사의 아미타상은 현재 居昌 尋牛寺에 봉안되어 있다.

<sup>24</sup> 이희정, 앞의 논문(2005. 10), pp. 169-174. 만약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1605년 논산 쌍계사 불사에서 1622년 서울 자수사와 인수사 불사를 할 때까지는 淸虛라 하였고, 1626년 보은 법주사 삼신불 조성 불사에서부터 1636년 구례 화엄사 삼신불 조성 불사까지는 淸憲으로 불리었으며, 1640년에 거창 연수사 아미타삼존불 조성 불사에서 다시 淸虛로 바뀌었고, 1641년 완주 송광사 삼방불 조성 불사 이후부터 1643년 진주 응석사 삼방불 조성 불사까지는 다시 淸憲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4년 경산 경흥사 석가삼존상 조성 불사 이후에는 다시 淸虛로 불리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조각승 가운데 이름을 바꾼 경우는 아직 한 사례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淸虛→淸憲→淸虛→淸憲→淸虛 등 처럼 4번씩이나 이름을 바꾼 사례는 더더욱 보고된 일이 없어 淸虛와 淸憲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1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朝鮮 1640년 8월, 高 112.0cm 膝幅 70.0cm, 原居昌 演水寺, 現 居昌 尋牛寺 (사진: 송은석)



도2 淸虛,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44년 5월, 高 148.2cm 膝幅 99.0cm, 慶山 慶興寺 (사진: 송은석)



도3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朝鮮 1645년 6월, 高 138.9cm 膝幅 98.5cm, 尙州 南長寺 (사진: 송은석)

이 있다(도 1, 2, 3). 연수사 아미타불의 발원문에는 수조각승 청허가 法玄, 賢允, 勝浩 등 3명의 조각승들과, 경흥사의 석가상 발원문에는 英蹟, 玄旭, 淨惠, 信雄, 懶欽 등 5명의 조각승들과, 남장사 아미타삼존상 발원문에는 英蹟, 玄旭, 天輝, 懶欽, 法燦 등 5명의 조각승들과 함께 작업하였다고 하였다.<sup>25</sup> 청허와 함께 두 불사에 참여하였던 이들 조각승들 중 법현, 영색, 현운, 나흠 등은 이전에 이미 淸憲과 함께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던 조각승들이어서 청허는 청헌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法玄은 1640년 청허가 심우사 아미타불상을 조성한 불사에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던 조각승으로, 이 불상을 조성한 1640년을 전후하여 청헌파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청헌이 1639년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3위 조각승, 청헌이 1641년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sup>25</sup>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 1640년 8월, 白紙紅書 (송은석 석문): “崇禎十三年庚辰五月日始役 八月已畢 居昌府因德山演水佛像三尊安于……畫員 淸虛 法玄 賢允 勝浩……”;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44년 5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畫員淸虛比丘 副畫員英蹟比丘 玄旭比丘 淨惠比丘 信雄比丘 懶欽比丘 榮伊”; 『慶山 慶興寺 木造右脇侍菩薩坐像 造成記』 1644년 5월 22일, 臺座에 墨書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보고서』): “順治一年甲申始役二月晦日造口五月二十二日畢役”;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造成發願文』 1645년 6월, 白紙墨書 (불교문화재연구소 석문, 송은석 교정): “……畫匠秩 海東名畫 淸虛 英蹟 玄旭 天輝 懶欽 法燦……時維順治二年歲在乙酉 癸未月 辛未日 雲衢醉用子復元書.”

5위 조각승, 청헌이 1643년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진주 응석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2위 조각승 등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3건의 불사에서 주요 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적인 청헌파 조각승으로 판단된다.<sup>26</sup>

玄允(賢允)은 1640년 거창 심우사 불상 조성 불사에서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던 조각승이다. 그는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5위, 1641년 완주 송광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8위, 1643년 진주 응석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하는 등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모든 불사에 참여하여, 역시 청헌파의 주요 조각승으로 판단된다.<sup>27</sup> 1641년 완주 송광사의 삼방불상을 조성한 불사는 淸憲派와 法靈派의 합동 작업이었는데, 청헌파의 대표로 주장인 청헌과 함께 法玄과 賢允

이 청헌파를 대표하여 참여한 점을 보면, 이들 법현과 현운은 청헌파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도4 玄允,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8年 4月, 高 84.5cm 膝幅 62.0cm, 金泉直指寺 (사진: 송은석)

玄允은 1648년에 청헌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김천 直指寺 南月寮의 <목조석가불좌상>을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하였다(도 4). 현운은 항상 자신의 선배인 法玄(2회), 元擇(2회)과 함께 불사에 참여하였는데, 1648년 직지사 남월료 석가상 조성 불사에는 선배인 원택이 현운을 도와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sup>29</sup> 직지사 남월료 석가불상은 몸체, 얼굴, 옷주름 등으로 보아 청헌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청헌 작품 가운데 직지사 남월료 불상의 제작시기와 가장 가까운 1643년에 만들어진 진주 凝石寺 삼방불의 석가불상과 가장 비슷하다(도 5). 응석사 석가불상과 직지사 남월료 석가불상

<sup>26</sup> 『河東 雙磎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39년 8월, 白紙墨書 (文化財廳 編, 『雙磎寺 木造二佛像 및 四菩薩像』, 『2003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회의 조사보고서』 [2003], pp. 27-33): “……匠人比丘淸憲 勝日 法玄 英頤 賢胤 應惠 希藏 尙安 學海 懶欽 靈湜……”; 『完州 松廣寺 塑造三方佛坐像 造成發願文』 1641년 6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書員 淸憲 法令 慧澄 會海 法玄 雲蹟 元澤 賢允 贊日 法密 惠熙 信雄 見牛 靈隱 惠遠……”; 『晉州 凝石寺 木造三方佛坐像 造成發願文』 1643년 5월, 白紙紅書 (송은석 석문): “……書員淸憲比丘 法玄比丘 元澤比丘 賢允比丘 定惠比丘 懶欽比丘…….”

<sup>27</sup> 주 25) 참조.

<sup>28</sup> 송은석, 앞의 논문(2008. 8), pp. 72-75.

<sup>29</sup> 『金泉 直指寺 南月寮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48년 4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順治五年歲次戊子四月初一日 紀……書員 玄允比丘 元擇比丘 天輝比丘 敬仙比丘…….”



도5 淸憲,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43年 5月, 高 141.5cm 膝幅 92.8cm, 晉州凝石寺 (사진: 송은석)

은 모두 상체에 비해 하체가 넓어 안정된 비례를 갖고 있으며, 얼굴은 상하로 긴 장방형이다.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은 두 개의 양각 주름이 계단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일치한다. 僧祇支는 가슴에서 끈으로 묶어 입체적 주름이 끈의 아래위로 표현되었으며,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은 중앙에서 퍼져 나간 옷주름이 거의 수평으로 양 무릎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도 같다. 다만, 응석사 석가상의 얼굴은 약간 딱딱하고 엄숙한 표정인 반면, 남월료 석가상의 얼굴은 응석사 상에 비해 부드럽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점 등이 다를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청헌과 현운의 작품은 매우 비슷하여 같은 유파에 소속된 조각승의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기록상에 나타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작품의 양식에서도 그대로 발현되었음이 확인된다.



도6 英蹟, 〈木造彌勒菩薩立像〉朝鮮 1633年 4月, 高 117.0cm, 原 楊州 檜巖寺, 現 坡州 普光寺 (사진: 송은석)

英蹟(또는 英頤)은 청허가 1644년 경산 경흥사 삼존상과 1645년 상주 남장사 삼존상을 조성할 때에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조각승이다. 그는 1626년 보은 범주사 〈소조삼신불좌상〉 제작 시에 수조각승 玄眞과 차조각승 청헌의 뒤를 이어 7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36년 구례 화엄사 〈목조삼신불좌상〉을 淸憲, 應元, 印均과 함께 제작하였으며,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제작 시에도 수조각승 청헌에 이은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바 있는 현진청헌과 그중에서도 청헌과 관련이 깊은 핵심 조각승이었다.<sup>30</sup> 영색은 1633년 양주 회암사에 봉안되었던 〈목조미륵보살입상〉을 현진과 청

30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佛坐像 造成發願文』 1626년 7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畫員 玄眞比丘 畫員 淸憲比丘 畫員 衍默比丘 懷默比丘 玉淨比丘 道罔比丘 英蹟比丘 雪梅比丘 性覺比丘 雪和比丘 惠明比丘 天浩比丘 日暎比丘 太先比丘 靈源比丘 性惠比丘 信允比丘……”; 『栢庵性聰,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 1697년 (『佛國寺·華嚴寺事蹟』 [1965], pp. 136-137): “……佛像大化土 懷默與希寶 邀請淸憲英頤印均應元等 傳得梅檀像……”; 『河東 雙磎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39년 8월, 白紙墨書: “……匠人比丘淸憲 勝日 法玄 英頤 賢胤 應惠 希藏 尙安 學海 懶欽 靈湜…….”

현의 작풍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도 6).<sup>31</sup> 머리는 몸체에 비해 크고, 얼굴은 사각형이며 턱이 각진 형태이다. 얼굴, 손, 발을 제외하면 가슴 일부만을 드러내 놓고 있으며 나머지는 두꺼운 옷으로 온 몸을 감싸고 있다. 사각형의 큰 얼굴은 1630년대 현진의 작품과 상통하며, 왼쪽 어깨 쪽의 옷



도 7 淸憲, 〈木造菩薩立像〉朝鮮 1639年 8月, 高 186.0cm, 河東 雙磎寺 (사진: 송은석)

주름이나 승기지를 묶은 끈의 표현법 등은 청헌이 수조각승으로 英頤(또는 英蹟)가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1639년의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사보살입상과 유사하다(도 7). 현진과 청헌은 현진청헌파의 수조각승들이며 영색 또한 현진청헌파의 주요 조각승으로서 인적 유대가 강하며 양식적 친연성 또한 강함이 확인되었다.

懶欽은 1644년의 경흥사 불사와 1645년의 남장사 불사에 참여하였던 조각승으로, 청헌의 제자이자 법현, 현운의 후배로 추정되는 조각승이다. 그는 수조각승 청헌과 선배 조각승 법현, 현운이 함께 참여한 1639년 쌍계사 삼방불 조성 불사와 1643년 응석사 삼방불 조성 불사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1648년에는 청헌과 비슷한 작풍을 바탕으로 하여 수조각승으로서 불상을 조성하였다.<sup>32</sup> 이 불상은 현재 양산 통도사 元曉庵에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는 통도사 약사전의 주불로 봉안되었던 불상이다(도 8). 이 약사불은 전반적으로는 청헌파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헌이나 현운의 작풍과 다른 나뭇 독자의 작풍도 보여주고 있다. 즉, 주름이 잡힌 승기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늘어진 대의 옷주름, 두 다리를 감싼 대의의 옷주름 등 옷의 표현은 청헌의 작품인 응석사 석가불상의 표현과 유사하다. 그러나

31 『坡州 普光寺 木造彌勒菩薩立像 造成發願文』 1633년 4월, 白絹墨書(崔宣一, 「과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미술사학』 24[2010, 12], p. 74): “彌勒菩薩願莊 崇禎陸年癸酉四月日京畿右道楊州牧地天寶山 檜岩寺新造彌勒菩薩尊像願莊…… 畫員 英蹟比丘 畫員 省勤比丘 畫員 智輒比丘 畫員 玉俊比丘 畫員 靈竺比丘…….” 최선일, 「과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미술사학』 24(2010, 12), pp. 67-92 참조. 이 불상은 지금 과주 보광사에 옮겨져 봉안되어 있다.

32 『河東 雙磎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39년 8월, 白紙墨書: “…… 匠人比丘淸憲 勝日 法玄 英頤 賢胤 應惠 希藏 尙安 學海 懶欽 靈湜…….”; 『晉州 凝石寺 木造三方佛坐像 造成發願文』 1643년 5월, 白紙紅書(송은석 석문): “…… 畫員淸憲比丘 法玄比丘 元澤比丘 賢允比丘 定惠比丘 懶欽比丘…….”; 『梁山 通度寺 元曉庵 石造藥師佛坐像 造成發願文』 1648년 7월, 白紙墨書(송은석 석문): “(慶尙)道梁山通度寺藥師殿藥師佛造成施主名目列書于后…… 上畫員懶欽 元卞 學淸 雙蝸 惠英 雪玉 彦伊…….”



도8 懶欽, 〈石造藥師佛坐像〉朝鮮 1648年 7月, 高 75.0cm 膝幅 55.5cm, 原 梁山通度寺, 現 梁山通度寺 元曉庵  
(사진: 송은석)

차이가 있다.

이상 法玄, 玄允, 英蹟(또는 英頤), 懶欽 등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불사에서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하던 대부분의 조각승들은 모두 청허의 수조각승인 불사에 이미 여러 번 참여한 청허파의 핵심적인 조각승들이었던 것이다(표 1). 이들 가운데 영색, 현운, 나흠의 세 조각승은 수조각승으로서 불상을 조성하였으며, 그들의 작품들은 모두 청허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 조각승들 외에도 1645년 남장사 불사에서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天輝는 1648년 현운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김천 직지사 목조석가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3위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청허파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청허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조각승들 이외에 勝浩, 淨惠, 信雄, 法燦 등은 아직 청허의 불사에서만 이름이 나타나 있다. 이들은 청허의 직계 제자인지 아니면 원오파나 청허파 또는 제삼의 조각승 유파와 관련이 있는 조각승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흥사와 남장사 불사에 모두 참여한 玄旭은 청허와 보다 긴밀한 관계였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1641년 심우사 아미타상 조성 불사에 4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勝浩는 1655년 칠곡 송림사 아미타삼존상을 차조각승으로 조성하였고, 1678년에서 德寺 영산전 삼세불상을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이래 1688년까지 여러 건의 불사를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조각승인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sup>33</sup> 승호에 대해서는 金吉雄, 「彫刻僧 勝浩가 제작한 불상」, 『文化史學』 27(2007. 6), pp. 881-894; 김길용, 「靑松 大典寺 冥府殿 石造地藏三尊像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 29(2008. 6), pp. 111-123; 崔宣一,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 『禪文化研究』 8(2010. 6), pp. 83-119; 이희정,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 pp. 122-135 참조.

몸체가 청헌 작품보다 둔중하고, 얼굴도 청헌 작품과 달리 턱이 각진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귀도 청헌 작품보다 긴 차이도 있다. 전반적으로 걸모습은 청헌의 작품을 본뜨려는 의지가 엿보이나, 실제 작품에서는 얼굴과 신체 표현 등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형식적인 옷주름 표현에서만 유사점이 보일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선배 격인 玄允의 직지사 남월로 석가상이 청헌의 응석사 석가상의 옷주름이나 체구 뿐 아니라 얼굴 표현에서도 유사한 면이 많았던 점과



도9 淸憲, 〈木造藥師佛坐像〉朝鮮  
1639年 8月, 高 172.0cm 膝幅  
120.0cm, 河東 雙溪寺  
(사진: 송은석)

청허와 청헌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은 청허와 청헌의 실제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저 무릎 위로 낮게 둔 시무외인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런 수인은 원오를 비롯한 원오파 조각승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헌이 1639년에 조성한 하동 쌍계사 〈목조약사불좌상〉에서 처음 시도하였으며, 勝日, 應慧, 熙藏 등 淸憲의 제자들도 즐겨 사용하던 청헌파의 특징 중 하나이다(도9).<sup>34</sup> 이 수인은 현존하는 청허의 모든 작품들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1640년의 거창 심우사 아미타상, 1644년의 경산 경흥사 석가삼존상의 좌우 협시보살상들, 그리고 1645년의 상주 남장사 아미타삼존상의 아미타불과 좌우 협시상 등 청허가 제작한 모든 불상은 항마촉지인을 지은 석가상을 제외한 모든 불상에서 이 수인을 발견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이후

에는 端應, 卓密 등 端應卓密派 조각승들, 그리고 進悅, 尙淨 등 進悅派 조각승들도 이 수인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17세기 전반에는 오직 청헌파와 청허만이 사용하였던 기법인 것이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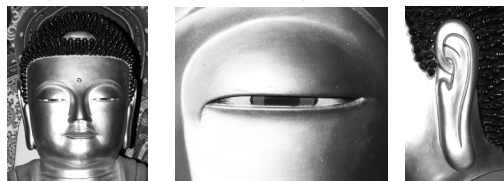
청헌과 청허가 제작한 모두 불상은 얼굴이 장방형이고 턱이 둥글다. 이마에서 콧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이어져 있다. 뺨은 볼록하지 않고 이마에서 턱까지 완만하게 폭이 줄어든 모습이다. 콧등의 폭이 비교적 넓은 면을 이루고 있으며 그 폭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도 10). 눈은 좌우로 수평이며 길이는 길고 상하 폭은 좁다. 윗 눈두덩이 볼록하지 않고, 아랫 눈두덩은 매우 얇게 표현되었다. 양쪽 눈이 모인 콧등 부분에는 눈꺼풀이 아래 눈두덩을 덮고 있는 듯, 눈 끝에 얇게 음각선을 두었다. 입은 얇고 입 주위에 양감이 표현되지 않았다. 이처럼 청허와 청헌 작품의 얼굴 표현은 거의 동일한데 반하여, 원오의 작품에서는 매우 다르게 나타

<sup>34</sup> 현진청헌파에 대해서는 宋殷碩, 「17世紀彫刻僧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 70·71(2004. 12), pp. 69-99; 李熙靜,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3(2005. 10), pp. 159-182; 李芬熙, 「조각승 勝一派 불상 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I(2006. 6), pp. 83-110; 宋殷碩, 「朝鮮後期 17世紀 彫刻僧 熙藏과 熙藏派의 造像」, 『泰東古典研究』 22(2006. 12), pp. 189-229; 文明大,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 『講座美術史』 29(2007. 12), pp. 355-380; 宋殷碩,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韓國禪學』 26(2010. 8), pp. 411-449 참조.

<sup>35</sup> 단웅탁밀파에 대해서는 沈柱完, 「龍門寺 木佛像의 작품과 그 영향」, 『講座美術史』 26-I(2006. 6), pp. 139-163;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美術史學研究』 278(2013. 6), pp. 163-194 참조. 진열파에 대해서는 崔宣一,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美術史學研究』 244(2004. 12), pp. 171-197; 崔宣一, 「18세기 중반 彫刻僧 尙淨의 활동과 佛像 研究」, 『美術資料』 75(2006. 12), pp. 33-54; 文明大, 「尙淨系 木佛像彫刻의 研究」, 『講座美術史』 29(2007. 12), pp. 87-106 참조.



a) 淸憲,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43년, 晉州凝石寺大雄殿



b) 淸虛,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44年, 慶山慶興寺大雄殿



c) 元悟,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05年, 論山雙溪寺大雄殿

도 10 淸憲, 淸虛, 元悟作佛像의 얼굴, 눈, 귀 비교  
(사진: 송은석)



a) 淸憲,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43년, 晉州凝石寺大雄殿



b) 淸虛,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44年, 慶山慶興寺大雄殿



c) 元悟, 〈木造釋迦佛坐像〉朝鮮 1605年, 論山雙溪寺大雄殿

도 11 淸憲, 淸虛, 元悟作佛像의 옷 비교 (사진: 송은석)

나 있다. 원오 작품의 얼굴은 상하로 긴 편이며, 양감도 청헌, 청허의 작품에서 보다는 많이 표현되어 있다. 눈에는 윗 눈두덩이 매우 볼록하다. 또한 이마와 코의 경계가 眉間에서 급격히 돌출하여 각이 지게 표현되어 있어 완만한 면을 이루는 청헌, 청허의 코와 다르다. 원오는 입술 양옆을 우묵하게 파내어 입과 뺨의 경계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반면, 청헌과 청허는 모두 밋밋하게 표현한 것이다. 청헌과 청허 작품의 귀는 폭이 좁고 길며, 이곽도 좁고 길다. 耳輪과 耳郭 사이의 三角窩는 매우 강하고 예리하며 짧은 음각선으로 표현된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원오 작품의 귀는 귀의 폭이 넓고 이곽의 폭도 넓다. 청헌과 청허 작품의 이륜 폭은 균일하고 단순한 반면, 원오 작품의 귀는 폭에 변화가 있고 복잡한 편이다.

청헌과 청허 작품의 옷 표현도 매우 유사하다. 대의는 오른쪽 가슴 부위에 2-3개의 층을 이루어 아래로 흘러내린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고, 두 다리 중앙에서 양 무릎으로 2-3줄의 평행선이 양각되어 있는 점 등이 거의 같다(도 11). 원오의 작품에서는 전반적으로 옷주름의 수가 많아 조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왼쪽 어깨의 옷자락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고 어깨에서 팔꿈치 쪽을 향하여 대각선의 양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보아 청허와 청헌의 작품은 매우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원오의 작품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상 조각승들의 인적 관계와 불상 양식을 분석하여 본 결과 청허와 함께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들 가운데 상위의 주요 조각승들은 대부분 청헌과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조각승들이며, 청허가 조성한 거창 심우사 아미타불상, 경산 경흥사 석가삼존상, 그리고 상주 남장사 아미타삼존상은 청헌의 작품과 매우 비슷하다고 확인되었다. 필자는 청허와 청헌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동일 유파에 속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적이 있다.<sup>36</sup> 그러나, 새로이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청허와 청헌은 각각 원오파와 현진청헌파에 속한 조각승으로 이 둘이 동일 유파에 속했을 가능성은 없다.

둘째, 수조각승 청허와 함께 불사에 참여한 상위의 보조 조각승들은 대부분 청헌파의 주요 조각승들이었다.

셋째, 1640년대에 원오파 조각승들은 실제 불사를 행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에 청헌파 조각승들의 힘을 빌어 불상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그러므로 청허 작품에 보이는 청헌 양식적 요소는 청허의 불사에 참여한 청헌 제자들의 작품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정은 元悟의 제자 또는 후배로 추정되는 幸思가 1648년에 海南 道場寺 〈목조삼방불좌상〉 조성 불사에서 원오파 조각승들이 아닌 無染을 비롯한 무염파 조각승들을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시킨 사례와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도 12).<sup>37</sup> 지금까지 이렇다 할 불상 조성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640년대 즈음에는 이미 원오파 소속의 조각승들은 불사를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 구성이 불가능하였고 유파의 조각승들을 재생산하는 구조도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 12 幸思,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8年 5月, 高 109.0cm 膝幅 73.0cm, 海南 道場寺 (사진: 송은석)

<sup>36</sup> 송은석, 앞의 책, p. 148.

<sup>37</sup> 송은석, 앞의 논문(2008, 2), pp. 301-303.

## IV. 경산 선본사아미타상의 조각가와 제작시기 추론

경산 선본사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주불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최근에 조사된 腹藏으로부터 조각가나 봉안처 등 불상의 유래를 알려줄 만한 發願文이 발견되지 않았다.<sup>38</sup> 그러므로 조각가와 제작시기 등이 불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形式分析을 통한 양식 연구에 의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선본사 불상의 형식분석을 통하여 양식적 특징을 추출하고, 조각승이 확인된 불상 자료들과 비교하여 조각가를 추정하고, 동일 작가의 기년명 불상들과 비교를 통하여 선본사 불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본사아미타상은 변형된 시무외·여원인을 결합하고 결과부좌한,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형식의 하나이다(도 13). 오른손은 무릎 위에 닿을 듯 낮게 두었고, 손바닥은 밖을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위로 쳐들어 시무외인을 짓고 있는데, 중지와 약지를 굽혀 엄지와 맞대었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편하게 다리 위에 두었으며, 오른손과 같이 중지와 약지를 굽혀 엄지와 맞대고



도 13 淸虛 추정,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代, 高 96.0cm 膝幅  
67.8cm, 慶山禪本寺  
(사진: 송은석)

있다.<sup>39</sup> 조선 전기까지의 불상들은 오른팔을 높이 든 형태의 시무외인만을 짓고 있었는데, 17세기에 들어서는 이처럼 낮게 두는 형식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수인을 갖고 있는 현존 最古의 불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淸憲이 1639년에 조성한 河東 雙溪寺 <목조약사불좌상>이며, 淸虛가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居昌 尋牛寺 아미타상, 경산 경흥사 석가상, 그리고 상주 남장사 아미타상 등도 같은 형식이다(도 9, 1, 2, 3).

선본사아미타상의 머리는 나발이며, 높이가 낮고 평면이 둥근 頂上髻珠와 작은 초승달 모양의 中央髻珠를 갖고 있어, 청허의 다른 작품들과 동일하다. 다만, 심우사 상은 선본사 상처럼 정상계주가 낮고 넓적한 반면, 남장사 아

<sup>38</sup> 선본사 불상은 현재 아미타상으로 불리고 있으나 발원문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의 불상 가운데 선본사 불상처럼 오른손을 올리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 '시무외인'을 지은 불상은 주준으로는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이 있을 수 있으며, 협시로서는 삼방불의 좌협시 약사불상이나 우협시 아미타불상일 수 있다. 그러나 청허가 조성한 거창 심우사와 상주 남장사의 두 아미타불상이 모두 선본사 불상과 같은 수인을 취하고 있고, 사중에서도 오랜 동안 아미타불상으로 여겨 봉안하고 있었으므로, 존명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미타불상으로 간주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sup>39</sup> 이 같은 수인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지은 立像의 불상이 坐像으로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뀐 모습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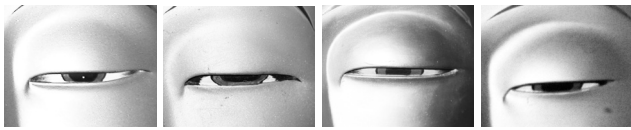
미타상은 정상계주가 앞의 두 상보다 좁고 높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얼굴은 폭에 비해 길이가 긴 편으로, 광대뼈부터 턱으로 이어지는 얼굴선은 경사가 부드러운 호선을 이루고 있다. 심우사 상의 턱은 네 작품 가운데 가장 넓적하고 둥근 형태이며, 남장사 상의 턱이 가장 좁으며, 선본사 상과 경흥사 상은 심우사 상과 남장사 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도 14). 눈은 눈꺼풀이 두껍고 볼록

하지만, 윗눈썹으로 이어지는 경계면이 뚜렷하지 않으며, 아래 눈두덩은 매우 얇다. 눈이 콧등과 만나는 부분에서 눈꺼풀이 아래 눈두덩을 덮고 있는 듯, 눈 끝에 얇게 음각선을 두었다(도 15). 입의 폭은 코폭보다 약간 더 넓다. 이러한 눈, 코, 입의 형태는 심우사 상, 경흥사 상, 그리고 남장사 상도 거의 같은데, 뺨과 턱의 외곽선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도 14). 귀는 심우사, 선본사, 경흥사, 남장사의 네 불상 모두 좁고 길며, 三角窩는 짧고 강한 음각선이 나타나 있으며, 耳郭도 귀처럼 매우 좁고 길다. 그러나 심우사 상과 선본사 상은 삼각와가 짧은 반면에 경흥사 상과 남장사 상은 길어졌으며, 남장사 상에는 이곽의 입구에 돌기같은 耳屏이 표현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와 변화가 보인다(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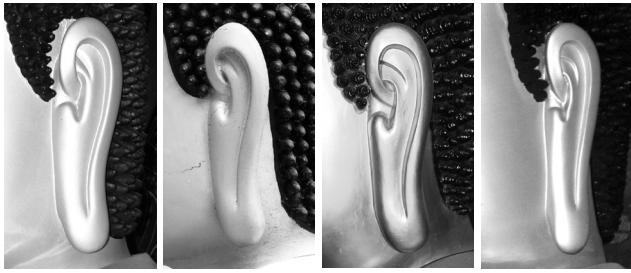
a)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 居昌 尋牛寺  
 b) 淸虛추정,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代, 慶山 禪本寺  
 c) 淸虛,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4년, 慶山 慶興寺  
 d)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5年, 尙州 南長寺

도 14 淸虛作 佛像의 얼굴 비교 (사진: 송은석)



a)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 居昌 尋牛寺  
 b) 淸虛추정,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代, 慶山 禪本寺  
 c) 淸虛,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4년, 慶山 慶興寺  
 d)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5年, 尙州 南長寺

도 15 淸虛作 佛像의 눈 비교 (사진: 송은석)



a)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 居昌 尋牛寺  
 b) 淸虛추정,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代, 慶山 禪本寺  
 c) 淸虛,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4년, 慶山 慶興寺  
 d)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5年, 尙州 南長寺

도 16 淸虛作 佛像의 귀 비교 (사진: 송은석)

웃은 조선 후기에 만들



a)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 居昌 尋牛寺



b) 淸虛 추정,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代, 慶山 禪本寺



c) 淸虛,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4年, 慶尙 慶興寺



d)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5年, 尙州 南長寺

도 17 淸虛作佛像의 大衣-오른쪽 가슴비교 (사진: 송은석)



a)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 居昌 尋牛寺



b) 淸虛 추정,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0年代, 慶山 禪本寺



c) 淸虛, <木造釋迦佛坐像> 朝鮮 1644年, 慶山 慶興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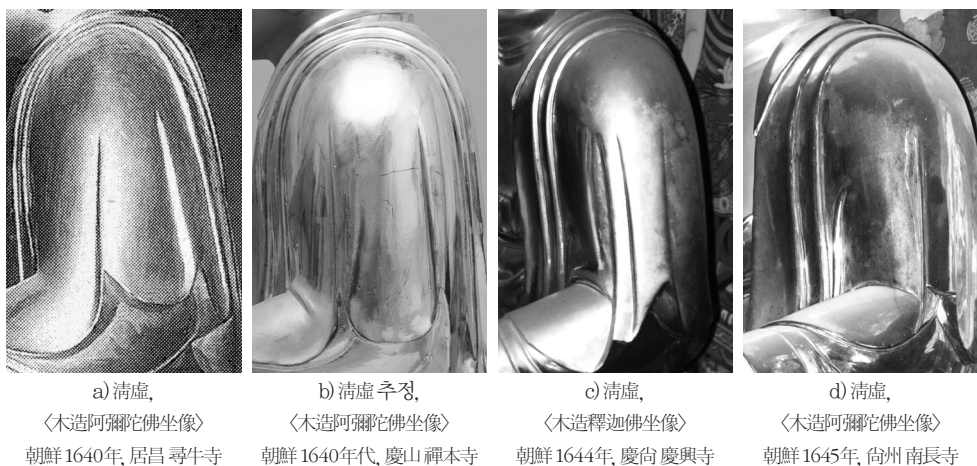


d) 淸虛, <木造阿彌陀佛坐像> 朝鮮 1645年, 尙州 南長寺

도 18 淸虛作佛像의 大衣-하반신 비교 (사진: 송은석)

어진 대부분의 불상들처럼 안에서부터 밖으로 裙衣, 僧祇支, 覆肩衣, 그리고 大衣를 차례로 입고 있다.<sup>40</sup> 대의는 變形扁袒右肩 형식으로 착용하였는데, 오른쪽 어깨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대의는 층을 이루고 있으며, 가슴 안쪽으로는 하단이 둥글게 마무리된 옷주름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옷주름은 심우사상에서 좀 더 뚜렷하나, 경흥사와 남장사상에서는 거의 사라져 부채꼴 모양의 층만 남아 있다(도 17). 하반신의 좌우 다리에는 각각 3줄씩 양각선이 나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폭이 넓은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하반신 옷주름은 심우사상, 경흥사와 남장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3줄로 이루어진 심우사상의 양각선은 경흥사와 남장사상에서는 2줄로 줄어들어 있다(도 18).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에 걸친 대의 자락은 측면에 길게 ‘U’ 모양으로 나타나 있으며, 심우사와 남장사상에도 동일하게 표

<sup>40</sup> 宋殿碩,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조각전』(호암미술관, 2001. 9), pp. 102-109.



도 19 淸虛作佛像의大衣-왼쪽어깨 측면 비교 (사진: 송은석)



도 20 淸虛作佛像의覆肩衣 비교 (사진: 송은석)

현되어 있어 청허의 특징적인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도 19). 왼쪽 무릎 위의 대의 자락은 왼발가락을 덮어 감추고 정강이 윗면에까지 이르렀는데, 똑같은 옷자락이 심우사 상과 경홍사, 남장사 상에서도 나타나 있으나, 경홍사 상과 남장사 상에서는 좀 더 크게 표현되어 있다. 부견의는 조선 후기의 대부분의 불상들처럼 복부에서 승기지에 삽입되었다가 나오는 형식이다. 그런데, 부견의가 삽입되었다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로 만들어낸 옷주름이 부드러운 호선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삽입되는 지점은 복부의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도 20). 부견의의 표현은 심우사와 남장사의 불상들과 동일하다. 승기지 상단은 얇은 끈으로 묶여 있으며, 끈의 위쪽에는 장식적인 꽃잎 모양으로 접혀 있으며, 끈 아래쪽에는 짧은 음각선으로 입체가 표현되었다.

선본사 아미타상은 오른손을 낮게 둔 시무외인의 수인, 상하로 긴 얼굴, 눈, 코, 입, 귀의 세

부 표현, 좌우 어깨와 하반신의 대의 표현, 부견의의 표현 등 대부분의 신체와 옷의 표현에서 심우사, 경흥사, 그리고 남장사의 불상들과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선본사 아미타상이 심우사 아미타상, 경흥사 석가상, 그리고 남장사 아미타상을 조성한 청허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우사 아미타상에서 경흥사 석가상·남장사 아미타상으로 변해가는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경흥사·남장사 불상보다는 심우사 불상과 공통되는 특징이 많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심우사 불상이 조성된 1640년에 가까운 시기 즉, 1640년대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청허는 1605년부터 1645년까지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복장발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보조 조각승 시기와 수조각승 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보조 조각승 시기는 1605년부터 1622년까지 원오와 각민을 수조각승으로 한 元悟派 안에서 수조각승들을 보조하여 활동하던 시기였고, 수조각승 시기는 1640년부터 1645년까지 淸憲派 조각승들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불사를 이끌던 시기였다.

청허는 초기의 보조 조각승 시기에는 원오파에 속하여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조각승 시기에는 원오파 조각승들이 아니라 청헌파 조각승들과 함께 했으며, 원오파 양식이 아니라 청헌파 양식을 따라 불상을 제작하였다.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활약하던 1640년대에 원오파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어 수조각승을 도와 불상을 조성할 보조 조각승들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청헌파 조각승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원오파 조각승이면서 수조각승 시기에 無染派 조각승들의 도움을 받아 불사를 행한 幸愍의 사례처럼, 청허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조각승 유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발원문이나 조성기에 의해 청허의 작품으로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현존하는 청허의 진작들인 1640년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44년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그리고 1645년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선본사 아미타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산 선본사의 주존 아미타불상도 淸虛의 작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몸체나 얼굴의 표현이 심우사 불상에서 경흥사 불상으로 변화하는 중간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선본사 아미타상은 이 두 불사의 중간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Key Words)\_청허(淸虛, Cheongheo), 조각승(彫刻僧, monk-sculptor), 원오파(元悟派, Wono school), 청헌파(淸憲派, Cheongheon school), 선본사(禪本寺, Seonbon-sa), 심우사(尋牛寺, Simu-sa), 경흥사(慶興寺, Gyeongheung-sa), 남장사(南長寺, Namjang-sa)

■ 투고일 2013년 9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0월 30일 ■

## 참고문헌

### 1. 발원문

- 「居昌 壽牛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1640년 8월, 白紙紅書 (송은석 석문).
- 「金泉 直指寺 南月寮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1648년 4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 「金海 仙地寺 木造佛坐像 발견 造成發願文」1605년 11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 「論山 雙溪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1605년 7월, 白紙墨書 (문명대 석문).
-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佛坐像 造成發願文」1626년 7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造成發願文」1645년 6월, 白紙墨書 (불교문화재연구소 석문, 송은석 교정).
- 「서울 佛教美術博物館 所藏 造成發願文」1598-1615년, 白紙墨書 (고경 석문).
-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造成發願文」1622년 5월, 靑緋紅書 (문명대 석문).
- 「順天 松廣寺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 造成記」1614년 9월.
- 「梁山 通度寺 元曉庵 石造藥師佛坐像 造成發願文」1648년 7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 「完州 松廣寺 塑造三方佛坐像 造成發願文」1641년 6월, 白紙墨書 (송은석 석문).
- 「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造成發願文」1605년 11월, 白紙墨書 (최선일 석문).
- 「晉州 凝石寺 木造三方佛坐像 造成發願文」1643년 5월, 白紙紅書 (송은석 석문).
- 「河東 雙溪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1639년 8월, 白紙墨書 (文化財廳 보고서).

### 2. 논문

- 金吉雄, 「彫刻僧 勝浩가 제작한 불상」, 『文化史學』 27, 2007. 6, pp. 881-894.
- \_\_\_\_\_, 「靑松 大典寺 冥府殿 石造地藏三尊像에 관한 考察」, 『文化史學』 29, 2008. 6, pp. 111-123.
- 金龍國, 「慈壽宮과 仁壽宮」, 『郷土서울』 27, 1966. 8, pp. 3-38.
- 文明大, 「조선 전반기 조각사론」, 『한국의 불상 조각』 4 - 高麗·朝鮮 佛教彫刻史 研究, 예경, 2003. 9, pp. 306-327.
- \_\_\_\_\_, 「尙淨系 木 佛像彫刻의 研究」, 『講座美術史』 29, 2007. 12, pp. 87-106.
- \_\_\_\_\_,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 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 『講座美術史』 29, 2007. 12, pp. 355-380.
- \_\_\_\_\_, 「석준(釋俊), 원오(元悟)파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講座美術史』 36, 2011. 6, pp. 579-597.
- 文賢順, 「明 初期 티베트式 佛像의 特徵과 영향」, 『미술사연구』 13, 1999. 12, pp. 119-152.
- \_\_\_\_\_, 「1450년-1460년대 紀年銘 아미타삼존불에 대한 고찰」, 『佛教美術史學』 3, 2005. 10, pp. 129-156.
- 宋殷碩,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조각전』, 호암미술관, 2001. 9, pp. 102-109.

- \_\_\_\_\_, 「17世紀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70·71, 2004. 12, pp. 69-99.
- \_\_\_\_\_, 「通度寺聖寶博物館 所藏 金銀製阿彌陀三尊佛坐像 研究」, 『佛敎美術史學』3, 2005. 10, pp. 101-126.
- \_\_\_\_\_, 「朝鮮後期 17世紀 彫刻僧 熙藏과 熙藏派의 造像」, 『泰東古典研究』22, 2006. 12, pp. 189-229.
- \_\_\_\_\_,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 \_\_\_\_\_, 「조선후기 불상의 腹藏發願文과 彫刻僧 기록」,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3, 2007. 11, pp. 11-30.
- \_\_\_\_\_,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覺敏, 應元, 印均」, 『普照思想』29, 2008. 2, pp. 300-311.
- \_\_\_\_\_,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美術史學』22, 2008. 8, pp. 69-103.
- \_\_\_\_\_, 「무염과 출신 조각승 도우와 회장파의 합동작업」, 『미술사와 시각문화』7, 2008. 10, pp. 198-223.
- \_\_\_\_\_, 「조각승 勝日과 勝日派의 造像 활동」, 『韓國禪學』26, 2010. 8, pp. 411-449.
- \_\_\_\_\_,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서울: 사회평론, 2012.
- 沈柱完, 「龍門寺 木佛像의 작풍과 그 영향」, 『講座美術史』26-I, 2006. 6, pp. 139-163.
- 이민형,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美術史學研究』278, 2013. 6, pp. 163-194.
- 李芬熙, 「조각승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26-I, 2006. 6, pp. 83-110.
- 李熙靜,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3, 2005. 10, pp. 159-182.
- \_\_\_\_\_, 「朝鮮後期 慶尙道地域 彫刻僧과 佛像」,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8.
- 정은우, 「동학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상의 연구」,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 동학사·공주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7, pp. 122-135.
- 崔宣一,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美術史學研究』244, 2004. 12, pp. 171-197.
- \_\_\_\_\_,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弘益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6.
- \_\_\_\_\_, 「18세기 중반 彫刻僧 尙淨의 활동과 佛像 研究」, 『美術資料』75, 2006. 12, pp. 33-54.
- \_\_\_\_\_, 「17세기 전반 彫刻僧 元悟의 활동과 佛像 研究」,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서울: 한국연구원, 2009. 8, pp. 1-26.
- \_\_\_\_\_, 「17세기 후반 彫刻僧 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 『禪文化研究』8, 2010. 6, pp. 83-119.
- \_\_\_\_\_, 「과주 보광사 대웅보전 목조보살입상과 彫刻僧 英蹟」, 『미술사학』24, 2010. 12, pp. 67-92.
- \_\_\_\_\_, 「남원 선원사 木造地藏菩薩三尊像과 조각승 元悟」, 『미술사학』27, 2013. 8, pp. 231-257.

## 부록

### 1.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佛坐像

「居昌 尋牛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sup>41</sup> 1640년 5월, 白紙紅書.  
崇禎十三年庚辰五月日始役八月已畢居昌府因德山

演水佛像三尊安于

佛像大施主天雄	本寺
佛像大施主金守歇	
佛像大施主宋從金	智閑
面金大施主表成希	應香
面金大施主學招	幸見
面金大施主崔松伊	無雲
供養大施主李世良	智玄
供養大施主宝勳	智海
布施大施主崔全号	印宗
布施大施主刑孫伊	雪嚴
烏金大施主李閑水	惠元
烏金施主李代亂梅	山人大德智儀
坐具施主劉國民	智海
坐圍施主禹大仁	
坐具施主金希眞	證明双信
腹藏施主羌金	持殿德守
朱紅施主一浩	畫員淸虛
烏金化主幸澄	法玄
黃金施主河乃從	賢允
腹藏施主勝還	勝浩
正鐵大施主李戊生	
材木施主鄭或	別率敬海

<sup>41</sup> 송은석 釋文. 네모 안의 글자는 훼손된 글자로 필자의 추정에 의해 복원된 것이다.

清演	供養主戒嚴
朴男	智安
愼永好	來往人太英
許白令	得男

食鹽施主李杰孫 幹善道人天佑比丘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當生極樂國

## 2.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三尊佛坐像

「慶山 慶興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sup>42</sup> 1644년 5월 22일, 白紙墨書.

歲在乙亥<sup>43</sup>有僧海雲與義瓊惠寬學眞等卜地于  
動鶴山之南麓謀建新刹海雲所聚禪僧兩堂之材  
未及赴役而身病義瓊惠寬學眞等召匠創建義  
淡燔瓦蓋之越三年丁丑<sup>44</sup>眞寬爲法堂化主營建數年蓋  
瓦修粧既畢法尙爲丹青及繪佛化主數年之間丹  
牘照耀法界儼然號曰慶興寺衆衲推靈主爲佛像  
化主諸處勸善三年之內凡具已備邀請全羅道  
金山寺畫員始役于草庵證師名雙信畫員名  
清虛三閱月而佛像已成奉安于法堂衆僧瞻拜  
歡聲雷動共命鳥三足鳥爭飛於蓮花臺上嗚呼  
千萬古草莽空山今乃爲一境大梵宮此非有數存  
焉於其間耶於千萬年陵不變谷不遷佛像其永  
無疆則普施衆生亦將福田無窮矣甲申五月二十二日<sup>45</sup>  
前參奉徐思選<sup>46</sup>誌

主佛大施主李榮立兩主左補處大施主李彥良兩主右  
補處大施主吳命守兩主二青大施主禦侮將軍金國明兩主

<sup>42</sup> 문화재청 손영문 선생 사진 제공, 송은석 석문.

<sup>43</sup> 1635년, 仁祖 13년, 明崇禎 8년, 淸天聰 9년.

<sup>44</sup> 1637년, 仁祖 15년, 明崇禎 10년, 淸崇德 2년.

<sup>45</sup> 1644년, 仁祖 22년, 淸順治元年.

<sup>46</sup> 1579-1651, 達成人, 호는 東臯, 進士. 경산의 玉川書院에 배향됨. 문집으로 『東臯先生文集』(韓國歷代文集叢書 1620)이 있다.

黃金大施主眞寬比丘淨齋米布施兼大施主安夢山兩主  
 供養布施茶禮兼大施主安國<sup>47</sup>男兩主開眼大施主曹成龍兩主  
 齋米茶禮大施主陳淵龍兩主食鼎清蜜大施主仇彥  
 忠兩主清蜜燈燭兼大施主李彥好兩主布施茶禮大施  
 主李丙同兩主釘子大施主朴難好兩主腹藏大施主朴好己  
 兩主腹藏大施主金汝哲兩主大施主李順兩主大施主徐  
 永和兩主大施主趙春發兩主大施主金玉守兩主大施主  
 河龍華兩主大施主陳石音福兩主大施主孫千萬兩主  
 大施主金蕃生兩主大施主甘守兩主施主柳日兩主施主  
 李春福兩主施主金松立兩主施主申莫同兩主施主雲峯  
 兩主  
 施主丁崇夫兩主施主李吾左末兩主施主鄭金同兩主施主李  
 義善兩主施主金介屎兩主施主金介夫兩主施主朴隣信  
 兩主施主金文鶴兩主施主安精信兩主施主李善兩主  
 洪泗龍兩主金祿守兩主施主愛龍兩主施主李同兩主施主  
 施主陳堯山兩主申榮海兩主朴命吉兩主曹慶立兩主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當極樂國同見  
 無量壽皆共成佛道

寺內秩

義瓊比丘	衍清比丘	
勝善比丘	衍均比丘	衍雄比丘
眞寬比丘	弘戒比丘	覺惠比丘
惠寬比丘	覺湖比丘	法心比丘
文信比丘	懷 <sup>48</sup> 淨比丘	德獻比丘
元學比丘	印澤比丘	熙淨比丘
性覺比丘	幸修比丘	信弘比丘
義環比丘	懷 <sup>49</sup> 濟比丘	覺惠比丘

<sup>47</sup> 國은 口+王.

<sup>48</sup> 懷는 卜+衣.

<sup>49</sup> 懷는 卜+衣.

宝罔比丘	印海比丘	懷 <sup>50</sup> 益比丘
坦英比丘	淨岑比丘	
法藏比丘	儀 <sup>51</sup> 淨比丘	
双益比丘	懷 <sup>52</sup> 印比丘	
彦謙比丘	衍贊比丘	
處玉比丘	懷 <sup>53</sup> 默比丘	
彦奇比丘	二和比丘	
印潭比丘	處日比丘	
善道比丘	坦能比丘	
忠湜比丘	清元比丘	
玄己比丘	懷 <sup>54</sup> 訥比丘	
幸玄比丘	戒默比丘	
天海比丘	法尙比丘	
	道淳比丘	
	懷 <sup>55</sup> 惠比丘	

緣化秩

證明雙信比丘 畫員清虛比丘 副畫員英墾比丘  
持殿雲雨比丘  
玄旭比丘 淨惠比丘 信雄比丘 懶欽比丘 榮伊  
供養主 處玉比丘 懷<sup>56</sup>哲比丘 來往衍行比丘 聖俊  
聖悅比丘 彥性比丘 衍聰挺敏保体  
別座 忠信比丘  
幹善道人靈圭比丘

---

50 懷<sub>レ</sub> 衤+衣。  
51 儀<sub>レ</sub> 亻+又。  
52 懷<sub>レ</sub> 衤+衣。  
53 懷<sub>レ</sub> 衤+衣。  
54 懷<sub>レ</sub> 衤+衣。  
55 懷<sub>レ</sub> 衤+衣。  
56 懷<sub>レ</sub> 衤+衣。

「慶山慶興寺木造右脇侍菩薩坐像造成記」<sup>57</sup> 1644년 5월 22일, 臺座에 墨書.

順治一年甲申始

役二月晦日造□

五月二十二日畢役

證明

持殿

大眞寬

三寶□敏

「慶山慶興寺新創記」<sup>58</sup> 原 1637년 6월(1897년 3월 曆書), 白紙墨書.

崇禎<sup>59</sup>二年丁丑六月日慶興寺新創記

供養大施主趙夢仙兩主

布施大施主張雲善兩主

李敬日兩主

金春生

劉希世兩主

韓豆音

朴得敏伏爲

亡父朴青山靈駕

孫千萬

金業伊

泣叱德保体

韓從男

李奉尙

全丕伊兩主

申英海

鐵物大施主吳福伊兩主

57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보고서 내 사진, 송은석 석문.

58 문화재청 손영문 선생 사진 제공, 송은석 석문.

59 崇禎의 誤記, 原本의 오기인지 曆書時의 오기인지 알 수 없음.

李英泉

金菴金

末醬大施主李順伊兩主

供養施主惠覺比丘

本寺運力秩

義瓊比丘 學□比丘

文熙比丘 戒眞比丘

學眞比丘 應湖比丘

竺岑比丘 哲雲比丘

智明比丘 釋還比丘

敬嘗比丘 慧日

元學比丘 忠信

儀<sup>60</sup>環比丘 卓淳

法藏比丘 敏學

幸修比丘 神明

彥兼比丘 性慳

釋明比丘 懶嚴

太均比丘 彥性

克雲比丘 克動

學能比丘 處玉

儀<sup>61</sup>淡比丘 處日

印淡比丘 淨應

彥哲比丘 學玄

處敏比丘 弘戒

裕識比丘 淨行

釋明比丘 學宗

裕印

木手秩 緣化秩

---

<sup>60</sup> 儀는 ㅅ+ㅅ.

<sup>61</sup> 儀는 ㅅ+ㅅ.

尙允比丘 別座慧覺比丘  
 三應比丘 供養主處性比丘  
 法澄比丘 覺湖比丘  
 三俊比丘 智男比丘  
 工和比丘 應丹比丘  
 慧天比丘 成造化主眞寬比丘  
 慧澄比丘 盖瓦化主覺慧比丘  
 竺玄比丘  
 妙雲比丘  
 懷淨比丘  
 海元比丘  
 天玉比丘  
 建陽二年丁酉三月日三創時謄書

### 3.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尙州 南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造成發願文」<sup>62</sup> 1645년 6월 20일, 白紙墨書, 92.0×80.0cm, 주지실.

願文

大聖觀世音菩薩

極樂教主阿彌陀佛

大聖大勢至菩薩

窃聞法身非相卽有相而現身眞體無形因假像而作體湛然空寂絕視聽而包含太虛常炤圓明離方處而廓周砂界由是大覺皇流慈也化三千猶一家愛四生猶一子度苦海」

之沈淪小弟子發心也是眞假爲一體慕萬德傾一心效優填之造像伏念弟子感前生之異報參今世之釋末繆盤支那未愒蓮邦虛稱出家實未入道嘆此身之浪生憫來世之窒塞所以聊劣小心輒任大事肘」

談柄於黑羊炎朱之月惟始役於青鷄暮春之日於是倩一國之名畫公造萬德之金仙氏匠未化於天上奇才巧無倫於世中般倻雖非負於香木誠不下於昔王操斧斫木聲未徹於三十三天承佛神力澤惟及於隨喜諸人」

<sup>62</sup>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석문, 송은석 교정.

而乃主極樂之教主補觀勢之二補阿彌陀金色如來無量壽無量光須摩提妙眞淨土極樂國安樂刹起六八之大誓願願願皆度生之本願開二八之正觀門門門悉攝化之眞門觀音大聖救世救苦普門示現願力弘」

深三十二應應羣機於百花道場十四無畏畏衆魔於紫竹<sup>63</sup>叢邊大勢大聖誓願深重念佛三昧引衆生於紫葉塘上攝化行願導含識於向藕花中八十種隨形之妙好<sup>64</sup>祭若芬花三十二大土之相儀嫩如圓月」

脩茲澁善事雖如綴麻而完錦功可矣鍊石而補天雖九牛之一毛尙萬德之三尊惟茲寶坊山名露陰寺號南長旣稱山之露陰陰雨露賴居民<sup>65</sup>之德蔭頗多惟曰寺之南長長嶠南勝名區之絕景最夥昔自」

黑螭之歲適值斑衣之寇千古琉璃一朝焦土僧徒四散鳥鵲一聚與有年之黠鼠韻釋名之尙輪不忍耕一場之痛悼遂成十五架之梵宮惟構堂之久矣乃琉璃閣之空哉卽今昭陽協洽玉珠上人」

投誠千種懇意萬端<sup>66</sup>慕圓滿之黃金色圖白玉毫<sup>67</sup>煒燁之白玉毫於斯旣就金相欲安玉殿則時維六月序屬三庚涓吉日擇良時取今月廿一日鬼鬼滿月眞容奉安于青蓮獅子妙菩」

提之座上炯炯海雲毫光昭徹向百億乾坤袞訶界之刹中香燹金爐聲震紺殿勝事云周瞻禮告罷以此功德伏願 主上殿下仁逾解網德並彈琴王妃殿下錦枝釀瑞玉葉」

產祥世子邸下蟲羽蟄蟄國儲綿綿亦願金諾大檀信垂手諸蒲塞現世則人敬而神佑棠牟邵希文之脫難禍去而福來誠類劉惠仲之無驚來生則芙蓉池內與諸聖而遊戲菡萏花中接」

勝友而盤桓鸚鵡孔雀共命頻伽之聲無日不聒於耳畔琉璃瑪瑙黃金界道之色非時未見於眼中抑願小小結因檀子之輩汲及運力執勞之流面視白玉毫身乘紫金座伏祈幹善比丘玉」

珠白業頓增惡緣漸消五雲堂中學善導之垂語永作不退佛子七琉璃內效量鸞之現形長爲勸進導師餘波攸盥共沐蒸枯」

大施主秩

李天慶 尹勝龍 金天禮 張壽 張應祥 李莖男 李杰南 李勝南 比丘道眞 文莫山 全彥希 崔杰致 莫介金 傑伊 全御屯 申忠己」

安莫同 廉白山 廉應祥 文吉 朴樂只 申春發 黃日 李山水 崔石龍 劉鳳壽 吳遠日 崔丕金 高得銀 仇福壽 聖代 金碍金」

張秋日 李軒起 申眞 權男 蘭德 申福南 朴成祿 徐允承 鳳禽 李善南 尹得連 椿荷

寺中韻釋秩 尙輪 淨岾 忠雲 應天 清涼 聖賢 忠信 性湖 時首僧處林 時三寶妙嚴」

63 竹紫에 글자를 서로 바꾸라는 부호가 있음. 즉, 紫竹.

64 好妙에 글자를 서로 바꾸라는 부호가 있음. 즉, 妙好.

65 民居에 글자를 서로 바꾸라는 부호가 있음. 즉, 居民.

66 (○)萬端意(上), 意를 위로 올리라는 부호가 있음. 즉, 意萬端.

67 (○)玉毫白(上), 白을 위로 올리라는 부호가 있음. 즉, 白玉毫.

證明名現尊宿智熙」

畫匠秩 海東名畫<sup>68</sup> 清虛 英蹟 玄旭 天輝 懶欽 法燦」

緣化秩 別座義心 飯頭覺靈 熟頭熙玉 勝雲 簞笄義行 負木松竝 來往戒融 幹善道人玉珠」

時維順治二年歲在乙酉 癸未月 辛未日 雲衢醉閑子復元書」

---

<sup>68</sup> 畫名에 글자를 서로 바꾸라는 부호 있음. 즉, 名畫.

## 국문초록

조각승 청히는 경산 경흥사에 봉안중인 목조석가불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의 '全羅道金山寺畫員' 기록에 의해 전북 김제 금산사 출신의 조각승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발원문 기록에 의하면, 그는 1605년에서 1645년까지 활동하였으며, 그의 조각가로서의 생애는 보조 조각승 시기와 수조각승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1605년부터 1622년까지의 전반기는 元悟, 覺敏 등 원오파 조각승들 아래에서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했던 시기이며, 1640년에서 1645년까지의 후반기는 淸憲派에 속한 조각승들을 보조 조각승으로 삼아 수조각승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1622년부터 1640년까지의 약 18년 동안은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보조 조각승 시기인지 수조각승 시기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청히는 초기의 보조 조각승 시기에는 원오파에 속하여 여러 불사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조각승 시기에는 원오파 조각승들이 아니라 청헌파 조각승들과 함께 했으며, 원오파 양식이 아니라 청헌파 양식을 따라 불상을 제작한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조각승 유파 내에서 師資相承하는 관례가 일반적이었던 조선 후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니었다. 熙憲派의 보조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한 無染派 출신의 道祐나, 무염파 조각승들을 보조 조각승으로 삼아 함께 불상을 조성한 원오파 출신의 幸思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조각승 청허도 이들과 동일하게 타 유파의 보조 조각승들과 함께 불상을 조성한 '합동작업' 방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1640년대에 제작된 불상들 가운데 아직 원오파만의 작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서 보면, 청허가 수조각승으로 활약하던 1640년대에 원오파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어 수조각승을 도와 불상을 조성할 보조 조각승들이 남아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원오파 조각승인 幸思가 無染派 조각승들의 도움을 받아 불사를 행한 시기가 1648년인 점도 청허가 1640년대에 다른 유파인 청헌파 조각승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과 상통한다.

이러한 사실은 복장발원문의 기록에서뿐 아니라 원오파, 청헌파 불상 양식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복장발원문에 의해 수조각승 청허의 작품으로 판명된 1640년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44년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그리고 1645년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모두 얼굴과 신체의 묘사에서 원오의 진작인 익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논산 쌍계사 목조삼방불좌상,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반대로 청헌의 진작들인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약사불좌상, 진주 응석사 목조삼방불좌상 등과는 매우 유사한 표현이 발견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청허를 보조하여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들이 대부분 청헌파와 연관을 갖고 있던 조각승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불상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산 선본사 아미타상은 몸체나 얼굴의 세부 표현이 심우사 아미타불상에서 경흥사 불상으로 변화하는 중간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선본사 아미타상은 이 두 불상의 중간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 The Career of the Monk-Sculptor Cheongheo of Geumsan-sa Temple in Gimje

**Song Un-sok** \*

It was discovered, in a record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Buddha image found in a wooden seated Buddha image enshrined at Gyeongheung-sa Temple in Gyeongsan, that Cheongheo was a monk-sculptor from Geumsan-sa Temple in Gimje. According to this record, Cheongheo worked as a sculptor from 1605 until 1645. His life as a sculptor can be divided into two distinct periods: his time as an apprentice and his time as a master. It appears that he served as an apprentice under the Wono School of monk-sculptors, which included Wono and Gakmin, between 1605 and 1622, and that he was active as a master monk-sculptor together with apprentices of the Cheongheon School during the period 1640-45. However, there are no records of his activities for the eighteen years between 1622 and 1640.

Cheongheo worked together with monk-sculptors of the Cheongheon School as a master monk-sculptor, although he took part in the production of Buddha images by the Wono School while he was an apprentice. He made Buddha images in the style of the Cheongheon School rather than in that of the Wono School.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monk-sculptors who followed a path similar to that taken by Cheongheon were exceptions rather than the rule. Extraordinary examples of such monk-sculptors include the monk Dou from the Muyeom School, who made Buddha images together with apprentices of the Huijang School, or the monk Haengsa from the Wono School, who made Buddha images together with monk-

---

\*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Gyeongju,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sculptors of the Muyeom School while training them as apprentices.

No Buddha images made by members of the Wono School in the 1640s, when Cheongheo was in his most active phase as a master monk-sculptor, have been found. Judging from that fact, the Wono School might have lost its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Buddha images. The facts can be confirmed by examining records left inside Buddha images and by comparing the style of Buddha image produced by the Wono School with that of the Cheongheon School. The Buddha images made by Cheongheo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made by Wono in terms of their facial and bodily expression, but are quite similar to those made by Cheongheon. Such a result is thought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monk-sculptors who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Buddha images as apprentices of Cheongheo were associated with the Cheongheon School.